

“3년간 애쓰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수능 전날 수험생 응원 펼쳐져
후배·교사 등 ‘수능대박’ 기원
예비소집 수험생 발길 이어져
“늘 하던 대로, 준비해 온 대로”

“고등학교 생활 3년간 애쓰고 노력한 만큼 원하던 목표를 이루길 바랍니다.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자들 파이팅.”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광주 남구 방림동 설월여고 교정에서는 1, 2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의 열띤 수능 응원이 펼쳐졌다.

학교 건물 앞에서 정문까지 길게 줄을 지어선 1, 2학년 학생들은 각자 풍선과 직접 만들어 온 피켓을 손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응원을 준비했다.

피켓에는 ‘언니들 파이팅’, ‘선배들 재수 없어요’, ‘정답만 보이네’, ‘합격은 다가와’ 등 귀엽고 재치 있는 응원이 담겼다.

오전 10시께 수험생들이 한 명씩 건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후배들의 힘찬 응원이 시작됐다. 1, 2학년 학생들은 힘찬 박수와 함께 북을 두드리며 ‘설월여고’와 ‘수능대박’을 번갈아 외치면서 선배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일부 학생들은 수험표를 들고 교문 밖을 나서는 선배들의 모습에 감정이 뭉클해지는지 웃소매로 연신 눈가를 닦기도 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광주 남구 방림동 설월여고 교정에서 교사들이 수험생들과 손바닥을 마주치며 응원을 건네고 있다.

1학년 이채은·강수민 양은 “3년간 열심히 달려온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힘든 학창시절을 견뎌낸 선배들이 자랑스롭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당차게 말했다.

교사들은 수험생 한 명, 한 명과 손바닥을 마주치고 등을 토닥이면서 “긴장하지 말고, 해왔던 대로 마음껏 실력을 펼치고 오라”며 제자들을 다독였다.

차동훈 생활안전부장은 “입학 때부터 지켜봐 온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관문을 앞둔 것이 감회가 남다르다”며 “수능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의고사 보듯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수험생들은 썩스러운 듯 얼굴을 가린 채로 레드카펫을 걷다가도 후배들을 바라보고 “파이팅”을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는 등의지를 다졌고, 길목에 설치된 ‘수능대박 골든벨’을 간절히 마음을 담아 울렸다.

같은 날 오후 찾은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에는 수능시험장을 미리 확인하는 예비소집을 위한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자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광덕고를 찾은 수험생들은 문에 붙은 시험장 안내표와 수험표를 번갈아 보며 본인의 수능시험장을 숙지했다. 시험장 확인을 마친 몇몇 수험생들은 양손을 맞잡은 채 수능시험장을 향해 기도하거나, 한참을 제



13일 광주 남구 방림동 설월여고에서 이채은(왼쪽부터)·강세민 양이 선배들의 ‘수능대박’을 기원하고 있다.

자리에 서서 수능날의 현장을 머릿속에 그리며 긴장감을 푸는 모습이었다.

‘결전의 날’을 맞은 수험생들은 긴장되지만, 떨지 않고 ‘수능대박’을 이뤄내겠다고 입 모아 말했다.

배인호(인성고 3년)군은 “시험장에 찾아와보니 가슴이 두근거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긴장감을 풀었다”며 “집에 가서는 부족했던 과목과 탐구과목을 훑어보며 복습한 뒤 일찍 잠에 들 계획이다. 꼭 좋은 결과를 내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고도운(송원고 3년)군은 “대학 수시에 합격해 최저등급만 맞추면 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담이 덜하겠지만, 막상 수험표를 받아드니 가슴이 두근거렸다”면서

“수능시험장에서 나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준비해왔던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험생활을 하루 남긴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책상 앞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동급생 친구들 모두의 ‘선전’을 기원했다.

송용화(석산고 3년)군은 “입시에 얽매고 싶지 않았는데, 수능 시험일이 눈앞으로 다가올 수록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면서 “내일 수능이 끝나면 내가 좋아했던 것이 뭔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탐구하면서 다시 나의 모습을 찾아가고 싶다. 학우들 모두 떨지 않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사진)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차상·도주차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전모(39)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및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를 낸 뒤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에게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미만이었으며, 음주 의혹을 부인 하던 김씨는 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



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하는 등 초동수사에 혼선을 조래하고, 경찰 수사력에 상당히 낭비시켰다”며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도주한 뒤 숙박업소에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쳤을 때 성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만취상태로 본인 차량에 방화한 60대 입건

심야시간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

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만에 완전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거나 그를 쫓아 소방서 추산 4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방화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음주 추적 중 사망사고 유발
검찰, 공동 협박 혐의 기소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음주운전이 의심돼 한 운전자를 추적하던 중 해당 차량의 단독사고가 발생,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사적 제재’ 논란<전남일보 9월24일 4면>을 일으킨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이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A(4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B씨의 차량을 뒤쫓았고, B씨 차량이 도로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8월 광산구 한 유류가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B씨의 차량을 추적하는 모습을 생중계했으며 A씨의 구독자 2명도 다른 차량을 이용해 B씨를 함께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의 유가족은 “평소 A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터라 심야에 벌어진 추격전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며 “일반인만 하더라도 어두운 밤 운전, 더군다나 두 대의 차가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상황에서 정상 주행을 불가능한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A씨의 경우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정상 주행을 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B씨에게 한 행위가 협박죄에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공동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현재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약 3주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게 협박이고 위협행위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게재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은행 노조, 김기홍 회장 ‘3연임 반대’ 투쟁 돌입

“과도한 이익목표...지역경제 파탄”
1인 시위·금감원 민원 제기 계획도

광주은행 노조가 지주사인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 저지를 위한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광주은행지부는 13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 회장이 지역은행의 금융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이익목표 활동으로 형편없는 금융상품을 파생시켰다”며 “기존고객 이탈을 가속화 시키는 등 지역상생이 아닌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끈 김

회장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이 중앙집권적 독재로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지주사는 자회사관리규정을 통해 자회사 경영관리를 하지만, 김 회장의 경우 이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자회사를 통제하고 사전보고 사후보고의 구분없이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보고를 의무화 했다”며 “이를 통해 각 자회사의 자율성에 따른 경쟁력과 전결권을 무력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의 압박과 강요에 의한 핵심사업인 비대면 중금리 대출이 실질연체율 12%, 누적손실 255억에 육박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

로인한 연체율 상승으로 영업점 연체관리 강화로 영업력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김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고위험대출인 외국인대출을 새로운 먹거리로 홍보하고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점 앞 천막농성과 아침 출근시간 조합원 집회, JB금융그룹 서울 여의도 사옥 앞 1인 시위,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3월 선임된 이후 2022년 3월 연임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성아 기자